

한국 개혁주의 설교자 시리즈 ①

## 그리스도의 교회 (마 16:13-28)

예수님은 세상에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성경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공동

그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라고 마음에 읊조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혈육을 가진 자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절대적으로 신앙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체, 신령한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을 때에 문득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곳은 동방의 이방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곳으로 종교가 왕성하고 헬라에서 들어온 철학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로마 군병이 주둔해서 로마의 가이사를 일개의 신으로 섬기는 로마 제국의 일부분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

도다'라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혈육을 가진 자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절대적인 신앙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그렇게 칭찬하고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예수님을 증거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계셨는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야'를 가르킵니다. '메시야'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부음을 받고 직분에 오르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와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희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로소이다'라고 하시며 만인을 용서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제사장은 다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제사장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직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며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제 2위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오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양육하는 도장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빨아먹고 성도로서 자라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일마다, 달마다, 해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개혁교회에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곳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성례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 회원이 되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일 년에 네 번, 열심히 있는 곳은 여섯 차례 성찬 예식을 베풂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베풀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예식을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식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대로 성례식을 베푸는 곳이 참된 교

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시거든 당회의 인도를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고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년에 네 차례 시행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이러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의 성도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잘못이 발각되어 당회에서 불러서 야단을 치거든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교회에서 얼마간 성찬 예식을 중지하고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징한다’, ‘치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집안 식구이고 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만약 한 사람이 잘못되

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며 예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고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하게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현대는 남녀 관계가 음란해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고치게 해주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위에 내가 세우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셋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장난, 마귀의 역사,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교회는 영원히 왕성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온 세계 만민을 다 포함한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교회가 무용지물이며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교

회를 팝박하고 소란케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게는 음부의 권세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도 죄 짓도록 마귀가 역사해서 심지어 목사들도 넘어지도록 만들고 죄악과 더불어 타협하도록 하는 일이 다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영 왕성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볼테르 (Voltaire)라는 무신론자이며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멸시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50년이 지나면 기독교회를 기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200년 후 지상에서 기독교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어느 날 밖에서 햇빛을 찢이고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까마귀가 물고 가던 것을 떨어뜨렸는데 그만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개월만 누가 나를 연명 해주면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지옥에 간다. 오! 예수여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결국 죽어갔습니다.

그가 50년 후에는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아무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집은 성서공회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성경을 많이 출판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여 굉장히 왕성하고 부흥하였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보기 싫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밀어닥치는데 일본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말살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

겨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박광영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옥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말씀을 끝까지 지킨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해방시켜주시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를 세계의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시켜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한국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 넷째,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고난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에게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고난 받지 못하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베드로를 계승해 나아가는 로마교회 교황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이 서

있는 교회는 로마교회, 천주교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사단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세우셨는데 왜 베드로를 향해 ‘너는 사단이라’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죄가 없다는 교황 무죄성과 성모 마리아 무죄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마리아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어기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의 연옥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죽으면 다 연옥에 들어가서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불속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남편, 아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현금과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구속할 수 있는데 인간이 바치는 재물이나 희생을 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연옥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위에 세워져야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펫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고난의 원리요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필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펫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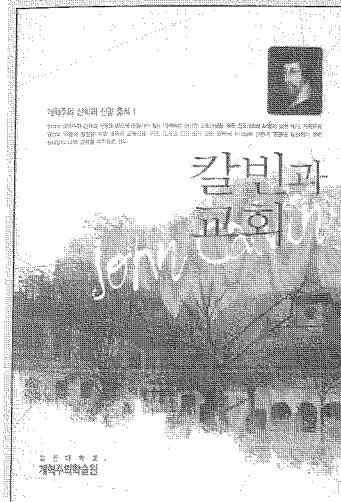
우리도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집행되고 우리 생활의 바른 지침을 가지고 훈계해주고 경계하고 책벌도 해가면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힘써 주고 기도해주는 참된 교회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주일날 예배당만 나오면 된다고 팽개쳐놓는 교회입니까?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간섭해주고 바로 세워가는 훈련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가르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로 양육해주는 참된 교회! 이런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이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미국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www.kcrcoc.com](http://www.kcrcoc.com))에서 2005년 9월 4일,  
마 16:13-28을 본문으로 행한 설교임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①

**칼빈과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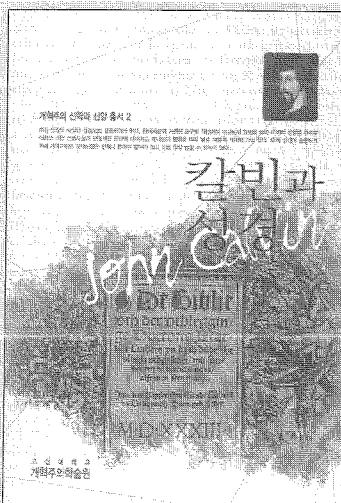
개혁주의자들이 요구한 교회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창조가 아니라 회개이다.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것의 창조와 확립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의 간신과 재확립이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회개 즉 성경적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교회갱신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되어진 오늘 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결국 교회를 갱신하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할 뿐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편 | 2007 | 10,000원〉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②

**칼빈과 성경**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악한 탐욕을 거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의 길, 즉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변해서 회개해야 하고 또한 너무 변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한다. …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과 충족한 근거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편 | 2008 | 10,000원〉